

1970-80년대 오아시스 레코드사의 비사(秘史)

김낙현*

1. 머리말

K-Culture 융합연구소에서는 2022년에 경기도 파주의 지구레코드사의 기록을 복원을 위해서 구성원들이 모여 구술사 채록을 시도했다. 이때 우리는 지구레코드만이 아니라 당시 가요계의 쌍벽을 이루었던 오아시스 레코드사 역시 조사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우리가 소개받은 인물이 김민배 선생이다.

김민배 선생은 1955년에 출생하여, 1970년대에 오아시스 레코드사에 총무부로 입사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문예부장을 역임했다. 그를 만나서 당시 오아시스 레코드의 운영 상황, 청계천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오아시스 레코드가 안양으로 이사 갈 당시의 상황, 그리고 당시 오아시스 레코드사에 소속되어 있었던 여러 전속 가수들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었다.

본 인터뷰는 2022년 8월 22일에 김민배 선생이 지정한 장소에 만나서 진행하였다. 이때 김낙현, 김낙현, 유춘동이 함께 했다. 현재 한국 대중음악사, K-Culture의 원조 격인 오아시스 레코드사에 대한 구술 기록은 한국대중음악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며, 이 분야 연구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시의 구술 녹취록을 세 명을 대표하여 필자가 정리하여 본 학술지에 게재하기로 한다.

* 현재 중앙대학교 다빈치 교양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 현대문화 전반 및 한국 대중문화에도 관심을 갖고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작업으로 공동으로 펴낸 『경기도의 대중음악/음반문화 관련 아카이브』(보고사, 2013) 등이 있다. nhyeonkim@hanmail.net

2. 김민배 선생과의 구술 녹취록

김낙현: 일단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한 번 해주시죠.

김민배: 저는 원래 오아시스 레코드사에 72년도에 입사를 해가지고 평사원으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총무과 영업부 직원을 거쳐서 84년도부터 문예부장직을 맡아가지고 97년까지 재직하다가, 이제 97년도 7월 달에 그만두었죠. 유일하게 음악 전공자가 아닌데 제가 문예부를 맡아서 했어요.

김낙현: 일단 원래 총무 쪽이나 다른 일 하시다가 하신 거 보면 음악에 대한 그래도 관심은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또 능력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셔서?

김민배: 능력이라기보다 이제 문예 파트에서 그때 당시에 문예부장 하던 분들하고 호흡이 잘 맞아서 조금 일하는 데 협조도 하고 도움이 좀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낙현: 그러면 문예부장님 되시기 직전에 전임 문예부장분들이요, 어떤 분들이 계셨나요?

김민배: 제가 하기 전에 박성규. 《해변의 여인》, 《바보 같은 사나이》 등을 작곡한 작곡가예요. 제가 이제 문예부 일을 맡기 전까지 아마 이제 주현미 매니저 일을 하면서 이제 회사를 그만 두셨어. 그분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이제 내가 하게 됐어 어부지리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김낙현: 그럼 그전에는 혹시 무슨 다른 쪽 전공이나 이런 거 하셨었어요?

김민배: 영업 파트하고 같이 좀 총괄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인 회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파트가 완전히 나뉘지는 것도 아니고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김낙현: 그 당시 위치는 서울이었죠?

김민배: 처음에 입사 처음에 했을 때는 서울 청계천 5가.

김낙현: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됐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원래 이제 다른 주변 사람들은 작곡가라든지 이런 거였을 텐데 본인은 아니라서 그래도 이거 해보겠다라는 계기 든 도전 의식 이런 거는 있으셨을 것 같아요.

김민배: 도전 의식이라기보다도 이제 음악에 관심은 좀 있었고, 어려서부터 이제 합창 같은 걸 많이 좋아하고 회사에 가수들 녹음할 때 좀 관심을 갖고 아 이 노래는 괜찮다 이거는 이 가수한테 맞겠다 하는 거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조금씩 옆에서 잔소리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김낙현: 84년 문예부장하시던 그 시절에 오아시스 레코드 당시 분위기를 좀 편하게 얘기

www.kci.go.kr

를 해주세요. 입사했을 때는 72년도인데, 입사했을 때
도 좀 얘기해 주시고요.

김민배: 얘기하자면 그때는 이제 직원이고 이제 잔심
부름 하고 막 그랬을 때니까 어렵었고, 그때 이제 청계
천에 있을 때인데, 그때는 가요 시장이 거의 한 60%
이상을 오아시스에서 차지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다
전속 제도가 있었고 나훈아, 박일남 씨 지금 돌아가셨
지만 이수민, 이현, 여러 엄청나게 많은 가수들이 있었
어요. 그분들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그 작곡 사무실이
같은 회사에 2층에 한 여덟 개 정도가 있었어요.

김낙현: 그러면 작곡가도 8분이 계셨던 거예요?

김민배: 8분 보다 더 많았었는데, 열 몇 분이 계속 오시는데 같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곡만 들고 가수들 연습시키고, 예를 들면 작곡 참 많이 쓰셨던 임종수 씨,
정풍송 씨, 신대성 씨, 그리고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원희명, 김학송 선생님,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문예부장 일을 하시던 민인설 선생님 또 그때 작곡가 여러분들 보면 박정웅 씨라고
《머나먼 고향》 같은 거 작곡하신 분. 가수들도 그분들 곡을 받아가지고 이제 새로 이제
데뷔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김낙현: 시스템은 작곡을 하면서 곡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전속 가수 중에 누구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곡을 준 건가요?

김민배: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어떤 경우는 가수가 찾아와서 자기가 원하는 작곡가한테
곡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회사로 가수 지망생이 오면 대충 한번 노래
들어보고 이 가수는 어떤 작곡가 맞겠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그게 연결을. 그렇게 해서
했고요. 그리고 그때는 자체 녹음실이 없어서 나중에 그때는 이제 서울 스튜디오라고 이층
에 본인 녹음실하고 마장동에 유니버설하고 한 몇 군데가 있었죠. 장충동하고. 그런데 이제
렌탈을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때는 카세트도 거의 없었을 때고 레코드판이었으니까 공장
은 망원동에 있었고요.

김낙현: 70년대였죠? 그 당시 망원동이면 지금보다 훨씬 개발이 안 됐을 텐데 거의 발
많고 이럴 때인데?

김민배: 이제 거기가 공장 지대고 막 이렇게 길이 개천이 나가는데 아까 약간 92년도에
들어왔어요 망원동예요. 근데 그 해 들어간 해에 홍수가 엄청 나가지고 그래서 공장이 다



사진1. 박성규가 작곡한 나훈아 음반
(출처: 매일경제)

물바다가 됐었다고 기계 건져내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김낙현: 오아시스가 망원동에 있었군요 공장이.

김민배: 거기다가 이제 카세트하고 이제 카트리지하고 자동차에 이제 포 트랙이 있어요. 네 대형 버스나 이런 데서 거의 많이 됐었는데 그런 거가 이제 조금씩 활발하게 되면서 음반 시장들이 이제 그런 게 많이 진출을 했어요.

김낙현: 카트리지 시장이 그래도 꽤 됐었나 보죠?

김민배: 그 당시에는 길지는 않았어요. 한 몇 년 됐을 거예요. 한 4~5년 정도.

김낙현: 그렇게 그 당시에 가셨을 때는 작곡가 사무실이 있고 청계천에 거기 이제 뭐, 선생님들이 와서 작품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가수들을 만나고 주로 만나는 장소는 그러면 청계천이었겠네요?

김민배: 청계천에 사무실하고 다 있었으니까. 우리 공장은 그 당시 망원동이고 그때도 이제 오아시스 레코사는 EMI 레코드하고 WEA 레코드 2개 회사의 라이선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쯤에 한 70년대 후반쯤에 레이프 가렛이 와서 남산에서 공연 했어요. 송의음 악당에서. 대단했었죠. 그때.

김낙현: 이사 가는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84년에 문예 부장하실 때는 계속 그쪽에서 계셨나요?

김민배: 79년도인가, 80년도에 안양으로 이사했어요.

김낙현: 이사 가게 된 계기는 뭔가요?

김민배: 이제 조금 사업이 잘 되고 그러니까, 녹음실이나 자체적으로 공장 부지도 이제 같이 이렇게 그 한 울타리에서 같이 하려고 이제 물색하다 보니까는 안양에 부지가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된 거요. 청계천 5가에 사무실이 있는데, 공장은 망원동에 있고, 녹음실이 마장동, 마장동이나 어디 여기저기 왔다갔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차피 자기 건물이 필요하기도 했었고 가서 이제 막 녹음실 만들고 에스에스엘 콘솔 32채널, 48채널 이런 거 두 대씩 사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녹음실만 해도 그 녹음실 홀 평수가 80평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런 녹음실하고 옆에 B스튜디오까지 이제 두 개를 만들고 5층에는 비디오 제작을 할 수 있는 비디오 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 안쪽에 있는 이제 레코드 프레스 실을 만들고, 그리고 한 80년대 중반쯤 90년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CD가 활발해지니까, CD 기계를 수입해서 CD 설치를 또 했죠.

김낙현: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신 거네요. 그럼 오픈 다음하고 오픈하기 전하고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회사의 그런 어떤 수익 구조면에서 옳기고 투자하니깐 훨씬 더 많이 더 좋아졌나요?

김민배: 좋아졌죠. 그건 뭐냐면 청계천에 있을 때는 그냥 기획사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음반을 만들어서 물론 이제 음반 많이 팔리면 그 정도의 수익은 다 되겠지만 이쪽으로 옳기고 나서 이제 자체 녹음실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수들이 더욱 많이 오게 되잖아요. 우리 가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 가수들도 이제 매니저나 이런 작곡가를 통해서 오게 되고 그러니까 가수들이 자꾸 많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중에서 아 욕심나는 사람 있으면 다시 트라이를 하는 거지 남의 가수 뺏는 게 아니고 이제 한번 건드려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좋은 가수들도 많이 좀 영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죠.

김낙현: 70년대 들어가셨지만 80년대부터 이제 문예부장 일을 하시고 그 이사한 다음부터가 어떻게 보면 더 오아시스가 활발한 시대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김민배: 그냥 뇌뿔어도 땅값도 배로 한 10배 이상 뛰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건 수익 구조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라이선스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 라이선스 음반이 좀 판매가 되니까 가요에 조금 등한시 한 적이 있었어요.

김낙현: 팝 쪽이 워낙 잘 되니까 그랬나 보죠?

김민배: 잘 되기도 했지만은 가수들 전속 계약이라든지 무슨 매니저나 거기에 얽혀 있는 다른 사람들이 관리하기가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또 조금되면은 이제 몸값 풀려가지고.

김낙현: 그렇죠. 그게 지구 오아시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잖아요?

김민배: 근데 그거는 뭐 가수 탓할 수는 없죠. 가수들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니까 그런데 되게 신인 가수 아주 무명이었을 때부터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키워준 가수가 어느 정도 컸을 때 회사에다가 흥정해가지고 잘 안 맞으면 다른 데로 가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랬었는데 이제 또 이제 라이선스 회사에서 가끔 이제 감사를 한 번씩 해요. 그게 또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게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뭐 거의 거의 한 달씩 그냥 외국 사람들이 와서 조사하려고 그러면 하루 이틀이 되겠어요. 그런 것도 신경 많이 써야 되고 다 일일이 장부 맞춰봐야 되고 이거 뭐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84년도에 내가 문예부 부장을 맡기 직전에 박성규 씨가 이제 문예 부장이 했을 때 주현미의 《쌍쌍 파티》를 만들었어요. 그게 히트했어요.

박성규 씨가 문예부장으로 있었을 때니까 박성규 씨가 했다고 봐야죠. 근데 그게 원래 이제 남자 가수 여자 가수를 이렇게 따로따로 노래를 이렇게 같이 한 게 아니고, 주현미가

노래하고 또 김준규 씨가 노래했는데, 작곡가 김준규 씨가 멀티에다가 이렇게 녹음을 한 게 아니고 이제 2채널에다가 녹음을 주현미 씨가 다 노래를 해놔요. 그러면 그 반주에다가 이제 김준규 씨가 노래를 다 불러놔 그다음에 한 4소절씩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테이프를 붙였다고요.

「쌍쌍파티」 3百萬장이상 팔려

최근 가요계에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김준규 주현미의 흘러간 가요메들리「쌍쌍파티」가 음반 테이프를 합쳐 3백만 장이상 팔려나간데 따라 화제가 만발. 이 음반을 펴낸 오아시스 레코드사는

10억원이상의 판매수익을 올렸다는 소문이고 김준규는 파산일보직전에서 살아났다는것.

또 주현미는 이번 음반취업으로 일약 인기가수가 됐으며 「쌍쌍파티」등 가요메들리에 이어 「비나리는 영동교」를 취입,성가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2. 쌍쌍파티 관련 기사(출처: 《동아일보》)

김낙현: 그래요? 트랙으로 믹싱한 게 아니고?

김민배: 트랙으로 믹싱한 게 아니고, 딱 이렇게 듣고 뭐 노래 한 네 소절 요 다음에 남자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를 잘라서요. 준규 씨 거를 딱 거기서 딱 붙이고 그 작업을 했다고요 처음에는, 근데 감쪽같아요. 같은 반주이고 이 톤 같은 것도 다 이미 맞춰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 작업을 이제 박성규 씨가 하신 거예요.

김낙현: 근데 버전도 남자 버전이 좀 다른 것들도 나중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김민배: 그거는 이제 내가 그거 만들고 나서 이제 주현미를 데리고 이제 박성규 씨가 이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봤는데요. 그거 만들면서도 사실 나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어요. 이제 야 이거 제목을 어떻게 할까? 이거 한번 들어봐라. 제가 이제 지방 출장 다닐 때 샘플로 이렇게 몇 곡을 나한테 주면은 그거를 내가 계속 택시 타고 다니면서 운전기사한테 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운전기사 반응을 보는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 당장 사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섞어서 부른 거를 제목을 만드는데 그거 이제 쌍쌍 파티라는 제목을 내가 만들어서 《쌍쌍 파티》내면 둘이 그래서 이제 그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집에서 5집까지 만들었어요. 2집에서 5집까지 만들었는데 너무 잘 팔리니까 그러면 주현미 독집으로 또 만들어 보자. 편집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것도 잘 나가는 거야. 주현미 독집은 《리듬 파티》라고 만들었어요. 독집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잘 나가는 거야 이제 김준규 씨 독집을 또 만들어. 김준규의 《리듬 파티》라고 그것도 잘 나갔어. 그러니까 다섯 종류를 만들었는데 이게 열다

섯 종류가 된 거야. 그래? 그러면 여기다가 멜로디를 입혀갖고 경음악을 만들자. 경음악을 또 만드는 거야. 어떤 《쌍쌍 파티》 음악 그것도 엄청 잘 나갔어요. 전자 올겐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많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아이템 가지고 한 더블 이상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엄청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20개가 돼버리는 거야. 아마 그거가 내 아이디어가 그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사장님이 날 시켰는지 몰라요 내가 사장님 의중이 그랬었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은 그게.

김낙현: 그 무렵이 어쨌든 막 시작하실 텐데 그때부터 쪽 지내시면서 기억나시는, 가수들 관련해서 어떤 가수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왜 문예부장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는 될 만한 사람 뽑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김민배: 자랑할 만한 거는 없어요. 특별하게. 그때 그렇게 하고 이제 주현미 히트 치고 막 내가 문예부 일 막고 나서는 그렇게 대박이 터진 거는 크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게 워낙 커서 워낙 크니까 그 주현미 《쌍쌍 파티》 음반을 구입하기 위해서 도매상에서 매일같이 차가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물건 받아가려고, 매일같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 이제 다른 음반회사에다가 하청도 주고 막 그랬었죠.

김낙현: 그러면 그 이후에 전속 사실, 이제 80년대 중후반 나가면서부터는 예전에 전속 시대보다 이제 작은 기획사들이 조금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티스트 전속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나요?

김민배: 아 이제 그게 전속 가수들이 이렇게 쪽 있다가 이제 전속을 예를 들면 10명을 전속을 했잖아요. 거기서 히트 치는 거 한두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우리 사장님이 좀 다작을 많이 하시는 편이었어. 다작 어느 구름에서 비 올지 모른다고 제작을 많이 해야 그 중에서 하나 걸린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10개 제작해가지고 다 망하고 하나만 터져도 그거 다 건질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나머지는 한 서너 개 정도 준 히트 나머지는 푼푼, 나머지는 완전히 빛도 못 보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그 PD 메이커들이 자꾸 활성화가 되는 거야 한 사람씩. 이제 이 음반 레코드 회사는 가수들 전속해가지고 많은 가수들을 확보하고 있지만은 PD 메이커는 그냥 사무실 하나에다가 가수 하나만 있으면 돼. 그리고 가수 하나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훨씬 어떤 면에서는 좀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변대운이나 박동아 이런 사람들도 네 변대운이는 최성수를 시작했잖아요. 예 박동원은 오복이로 했고. 그때도 이제 오아시스 녹음실을 많이 빌려서 쓰고 그랬어요. 여의도 기획했을 때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가수들이 PD 메이커에서 하나 둘씩 이렇게 커가기 시작하니까는 전속돼

있는 애들도 조금 그 회사에서 등한시하면 나가서 그냥 사무실 따로 만들었어요.

김낙현: 전속 시절에서 PD 메이커로 옮겨가는 시절이 80년대부터?

김민배: 네. 그때부터예요. 이거 전속을 한다는 거는 전속금 얼마 주고 일 년에 판 몇 장 내야 되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전속금은 주긴 주지만은 이게 꼼꼼하게 무슨 판을 1년에 몇 장을 내고 홍보는 어디까지 해줘야 되고 그런 게 없으니까는 가수들도 막 내고 오래 묶여 있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가수가 노래가 안 돼서 그런 걸 뭘 자꾸 이렇게 되는 거지 서로 이렇게 그게 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김낙현: PD 메이커 1호는 누군가요 혹시 기억하세요?

김민배: 초창기이기는 하지만 그전에도, 그분들이 있었죠. 이승대 씨나 무슨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기 박용 씨, 김수희 했던 김수희 씨를 제작하신 분이예요. 여러 분 있었죠. 있기는 PD메이커라는 그런 개념도 있었지만 가수를 데리고 있으면서 한 회사에서 계속 음반을 제작하고 그랬던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하고 나서는 아마 변대운이나 이제 박동아 씨 이런 사람들이 제일 크게 됐죠. 그 사람들이. 녹음실만 이렇게 썼으니까. 이제 최성수는 아마 그 박용강 씨라는 분하고 같이 판 하나에 한쪽은 최성수 한쪽은 박용강 이 이렇게 하고 다 한 적도 있었는데 변대운 씨를 만나가지고 아마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김낙현: 같이 작업하실 때 80년대 작업하실 때 혹시 가수들 특별히 기억나는 가수들 있으시면 직접 이렇게 키운 건 아니라도 오아시스 전속 가수 중이나 혹은 거기서 PD메이크 한 가수 중에 잘 된 가수들 기억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오아시스를 통해서 좀 더 알려졌는지?

김민배: 우리 서울 패밀리. 나중에 위일청이 따로 이제 나가고 솔로도 전속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한참 후에 투투.

김낙현: 투투요?

김민배: 90년 들어가면서 투투.

김낙현: 오아시스였나요?

김민배: 양승국이라는 사람이 제작. 그거는 이제 마이킹 쪽로 해가지고.

김낙현: 신성우는 누구였죠?

김민배: 박철성이라는 사람이 처음 제작했어요. 박철성 옛날에 킹레코드. 그래도 아마 그 사람이 막내인가 셋째인가 거기예요. 킹레코드에 동생.

김낙현: 오아시스, 지구 말고는 선생님 보실 때 다른 레코드사는 어땠나요?

김민배: 그때 우리 시나위도 했었거든요. 시나위 때가. 신대철이 기타, 서태지가 베이스, 서태지가 베이스였고, 김종서는 노래했고, 김종서가 아니고 김하늘이가 노래했습니다. 아마 또 드러머 김민기.

김낙현: 좀 전에 말씀드린 다른 음반사나 레코드사 혹시 기억나시면 하세요?

김민배: 안양 오아시스 옆에 태광이 있었고, 태광 음반에 이제 거기에 안치행이라는 분이, 그분이 만약에 이호섭 씨하고 같이 해서 문희옥 사투리 메들리를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대박 났지.

김낙현: 혹시 이게 서울에 있다가 옮기면서 저희가 이제 또 이제 경기 지역의 음반 실태에 대한 것도 이제 약간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 지역이라서 이게 더 회사를 운영하기에 좋았던 그런 무슨 장점이 될 만한 게 있었을까요?

김민배: 경기도에서 더 유리한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거의 다 연예인들이 서울.

김낙현: 다 서울이 활동이니까 서울에서 할 법한데 하다가 이제 옮긴 거면 가격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땅값, 그 얘기는 저쪽 김철한 선생님은 하시던데요. 파주 쪽으로 간 이유를 얘기하실 때 그쪽에 레코드 공장을 만들 때 물이. 물이 필요하다.

김민배: 물이 필요해요. 예 주변에 물이 흐르는 곳이 있어야 그걸 식히고 이거 하는 작업이 수월했어요. 프레스 설치하려고 그러면 열로 이제 하지만 빨리 식어야 되니까 이제 물이 필요했어요.

김낙현: 예 그래서 그 대자리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쪽 지역이 이제 하천이 있고 해서 이쪽으로 아마 한 걸로 기억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안양으로 옮기신 것도 그러면 혹시 옆에 안양천이나 이런 이유인가요?

김민배: 좀 거리가 있는데 이걸 이제 지하수를 뿔쥔. 우리는 지하수를 파가지고 지하수를 써 지하수가 아주 풍부하게 나왔으니까.

김낙현: 그러면 어쨌든 물을 공급하는 부분은 고려 대상일 수 있었겠네요.

김민배: 그렇죠 장소를 정할 때 그럼요.

김낙현: 경기도가 딱히 유리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겠네요. 그냥 서울로 경기도보다 더 떨어지면 아무래도 머니까 수도권이니까 경기도 서울 살짝 외곽에다 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안양 정도 면은 가수들이나 연주자, 작곡자, 작사자들이 움직이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여의도가 강남이잖아요. 강남 쪽도 훨씬 가깝고, 혹시 당시 같이 활동하실 무렵에, 선생님 시절에 나름 가요계의 영향력이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김민배: 영향력 있는 분들은 많았죠. 그런데 이렇게 이름 대라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금방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나름 잘 나가시던 분들인 것 같아서 그 시절, 음반회사 했던 분들은 거의 다 잘 나갔어요. 한때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오아시스든 지구든 지금은 오아시스는 지금 흔적도 없어요. 지구는 아들이 맡아서 지금까지 하니, 오아시스는 음원 관리만을 지금 하고 있는.

현대레코드의 서현식 씨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음반 회사 1세대들은 거의 지금 안 계신 것 같아요. 그걸 또 맡아서하는 사람들도 없고, 지금 이제 음반회사로서 레코드사로 명맥을 이어가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공장이나 이런 시설들을 다 없애버리고, 사무실만 가지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 2세대들이 크게 벌리지 않고, PD메이커 정도로 이렇게 알차게 하는 예를 들면은 이수만 씨라든지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좀 순발력이 있고 이렇게 기획력을 확실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좀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음반회사들이 거의 개인 회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주식 법인으로 다 바꾸긴 했지만은 그래도 1인 체제거든요. 마인드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오래동안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은 서로 믿기도 하고 어느 정도를 실무적인 책임도 져주기도 하고 그래야 더 아이디어도 내고 이제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 같아요.

김낙현: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수장이 있어도 밑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뭘 또 맡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문예부장 다음으로 갈 곳은 없었던 건가요?

김민배: 이게 제가 오아시스레코드사에서 이제 개인 회사 오아시스 레코드 사였으니까 이제 개인 회사였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문예부장 일을 하는 중간에 주식 법인으로 바뀌긴 했어요. 그래도 직급이 사장다음 문예부장님이 끝이야 없어 중간에 무슨 상무 전무가 없었다고. 아들이 이름이 손종무라고 있어요. 손종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무가 돼 버렸어. 이름 따라서 이게 상무 전무 제도가 없고 그냥 바로 문예부장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딱 이렇게 바로 이제 사장하고 수직 관계로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도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거에 대한 의욕이 없는 거지.

김낙현: 더 키워서 예를 들면 직원으로 들어왔지만 나중에 회사를 우리 같이 하는 임원으로 올려줄 만한 그런 시스템은 없었던 거네요?

김민배: 지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지구도 그랬겠죠.

김낙현: 97년에 은퇴하시고 나서 오아시스는 그러면 그냥 명맥은 유지가 되었나요?

김민배: 유지가 한 10년 정도, 2000년대까지요. 그렇지만 뭐 별다른 활동은 없어 다 기획사 중심이죠. 이제 97년이면 거의 이제 하향세였죠.

김낙현: 그래도 나름 그 시절이 좋았던 시절이었네요. 그런 호시기에 가요계 한복판에 계셨구요?

김민배: 그때 굉장히 했죠. 하여튼 뭐. 이게 아주 굴지의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음반 회사 지구 오아시스레코드사 그러면 알아주잖아요 웬만해서는 거의 다.

김낙현: 대단한 시대에 살으셨죠.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민배: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김낙현: 그럼요 감사합니다.